

나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력이 없고 게으르다.

이건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한 초심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발버둥이다.

평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해두는데, 보통 다듬어진 글이 아니라서 나중에 찾아볼 때 힘들었다.

이렇게 써어가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서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아이디어 공장의 프로그램 제조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그려보았다.



글 제목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YYYY년 M월 W주차 아이디어 입고 | 아이디어 이름 1, 아이디어 이름 2, ...

프로그램 생산 W주차 | 아이디어 이름

프로그램 출하 | 아이디어 이름

굳이 형식까지 정해두는 이유는 그게 편하기도 하고, 나중에 여력이 있다면 진행할 자동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름 형식 적다 보니 헛갈리는 것이 있었다.

가령 9월 1일이 목요일이면 그날은 8월 마지막 주인가 아니면 9월 첫 주인가?

해답은 e-나라표준인증 포털에 있었다.

2.2.8 역주 (Calendar week)

역년 중의 서수에 의하여 지정되는 특정한 7일의 기간으로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2.2.10 역주 수 (Calendar week number)

처음 역주의 법칙에 따르면, 역년 내, 역주를 나타내는 일 년의 첫 번째 목요일을 포함하는 수이다.

역년의 마지막 역주는 다음 역년의 첫 번째 역주 바로 이전의 주이다.

3.2.2 역주

1역년의 첫 번째 역주는 전 역년에서 3일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1역년의 마지막 역주는 다음 해의 3일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1억년의 주날짜에 의해 형성된 시간 간격은 역일이나 동일한 해의 서수날짜에 의해 형성된
시간 간격과 같지 않다. 예를 들면

- 1995년 1월 1일 일요일은 1994년 52번째 주의 7번째 날이며,
- 1996년 12월 31일 화요일은 1997년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날이다.

첫 번째 역주를 결정하는 규칙은 '첫 번째 역주는 1월 4일을 포함하는 주이다'라는 규칙과 동일하다.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Id=72059203331956996>

국가표준 표준번호 'KS X ISO8601', 표준명 '데이터 요소 및 교환 포맷 — 정보교환 — 날짜 및 시각의 표기'의 표준 원문 中 일부 발췌

한 주를 목요일 기준으로 나누면 월~수 3일, 금~일 3일 똑같이 나뉜다.

각각 3일에 목요일이 포함되면 한 주 7일의 과반수 4일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 월~목 사이에 있으면 그 해 첫 주, 금~일 사이에 있으면 지난해 마지막 주로 취급하는 듯하다.

매년 첫째 주를 그 해의 첫 번째 목요일을 포함하는 주로 삼고 있으니, 매월 첫째 주 역시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그 달의 첫 번째 목요일을 포함하는 주로 삼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표준 원문을 찾아본 결과 'W번째 주'는 있어도 'M월 W번째 주'라고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월별 주 단위 표기는 공식 표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앞서 제시한 표준에 근거해 그냥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 주간일지 챌린지만 보더라도 앞서 추측한 것과 다르게 매월 첫 주를 첫 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로 설정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쓰인 표준 원문보다 검색 중에 발견했던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쉽게 풀어쓴 블로그 글이 더 이해하기 쉬웠다.

가독성이 높고 오류가 적은 글을 쓰고 싶은데, 아직 한참 먼 것 같다.

아니 그래서 이 말 하려던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전까지는 떠오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록해두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제대로 구현까지 해보려고 한다.

밤팔이 공장장 파이팅!